



BASICCLASS

11 TIP FOR PAINTING



시작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미니어처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용한 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른 유명 페인터나 가이드 등을 통해 얻은 것이고 일부는 직접 모델을 도색하면서 실수를 통해 터득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용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저의 도색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팁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차례 1:1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팁들을 교육했는데, 수강생 분들께서 상당히 유의미한 실력 향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해 올리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번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직접 강의하는 것만큼은 자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색 프라이밍은 디테일 작업에 유리하다

미니어처 페인팅에서 가장 흔한 프라이밍 색은 검은색입니다. 블랙 프라이밍을 하면 그림자 부분을 따로 칠하지 않아도 쉽게 티가 나지 않고, 색감도 묵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은색 프라이밍의 경우, 노란색이나 흰색처럼 밝은 색을 칠하기가 힘듭니다. 밑색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작은 장식 같은 디테일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회색으로 프라이밍을 할 경우, 어두운 색을 칠하기도 좋고, 밝은색을 칠하기도 쉽습니다. 보통 검은색 도료는 발색력이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색감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위에만 다시 검은색을 칠하면 됩니다. 또한 디테일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도색하기 좋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경우 회색으로 프라이밍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붓 말고 **스프레이**로 프라이밍 하라

프라이머란 위에 매끄러운 플라스틱이나 레진 표면에도 잘 흡착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점착력이 매우 높은 제품이란 뜻이죠. 때문에 붓으로 프라이밍을 할 경우, 제대로 희석되지 않은 도료가 서로 엉겨붙거나, 좁은 틈에 고이거나, 거품이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스프레이로 프라이밍을 할 경우 모델 전체에 고르게 프라이머를 분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머가 작은 입자 상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모델 표면에 거품이 생기거나 엉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완성도 있는 도색을 위해선 고른 프라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에선 독한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준수한 퀄리티를 위해선 가까운 공방 등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라이밍은 너무 꼼꼼할 필요가 없다

스프레이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너무 꼼꼼했을' 때 생깁니다. 플라스틱의 색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뿌리다 보니 장식 같은 작은 디테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는 프라이밍을 할 때 스프레이의 압력과 범위를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니어처 도색에서 프라이밍은 도료가 올라가기 쉽도록 모델 표면에 얇고 불규칙한 발판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도료가 잘 올라가기만 하면 기본 역할은 다하는 것이죠. 다행히 아크릴 도료는 점착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판이 있으면 거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어브러쉬로 도색할 생각이 아니라면, 위 사진처럼 등성등성 아래색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래색을 없애는 것보단 디테일을 살리는데 집중해보세요.



웨트 팔레트는 싸고 유용하다

웨트 팔레트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웨트 팔레트를 사용하면 도료의 농도를 컨트롤하는것도 훨씬 쉽고, 조색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도료를 아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직접 만들기도 매우 쉽습니다.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키친 타올과 기름종이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서 직접 만든 팔레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회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구매하세요. 가장 유명한 Redgrassgames 의 제품도 3만원 정도고,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AK 사의 제품은 만원대 중반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이후엔 종이 값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헤어 드라이어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도료가 마르길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다 마르기 전에 성급하게 붓을 댔다가 앞서 칠한 레이어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생각 없이 마르지 않은 모델을 잡았다가 지문이 남는 경우도 있구요.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만원 이하의 저렴한 드라이어라도 괜찮습니다. 도료를 칠한 뒤, 중간 세기로 5-10초 정도만 열풍을 쐬주세요. 아크릴은 건조 속도가 빠른 도료기 때문에 열과 바람을 쐬주면 순식간에 건조합니다. 반드시 중간 세기로 사용하세요. 바람을 너무 강하게 쐬면, 쉐이드나 콘트라스트 도료가 액체 상태로 밀려나며 커피 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열기를 너무 세게 쐬면 플라스틱이나 레진 표면이 구부러질 수 있구요.



엷지 하이라이팅은 붓의 옆면으로

칼날이나 갑옷의 테두리, 장식의 끝부분 같은 돌출부에 엷지 하이라이팅을 할 때는 붓의 옆면을 이용하세요. 붓의 측면 부분을 비스듬히 돌출부에 대고 칠하면 매우 손쉽게 엷지 하이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할 때는 너무 강한 힘을 주면 안됩니다. 붓이 구부러지며 붓모가 다른 부위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붓의 측면을 모서리에 대고, 쓰다듬는 느낌으로 붓질을 해주세요.



좋은 붓을 사용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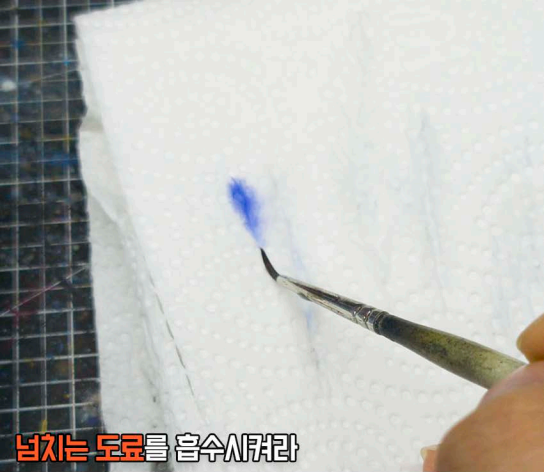
이전 가이드에서 처음부터 비싼 붓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었죠. 이 생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만약 도료를 희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붓이 금방 망가져서 작은 점이나 선을 그리기 힘들다고 느꼈다면, 이제 비싸고 좋은 붓을 구매할 때가 된 것입니다. 콜린스키로 대표되는 천연모 붓들은 탄력이 있어서 디테일 도색을 할 때 유리하고, 탄성이 좋아 오래 사용하더라도 물만 먹이면 날카로운 붓모를 회복하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미니어처 도색용으로 제작된 Artis Opus 사의 붓을 가장 애용합니다. 만약 이 붓을 구하기 힘들시다면, Raphael 의 Series 8404 나 Winsor & Newton 의 Series 7 (Miniature 가 아닌 그냥 Series 7), 혹은 Redgrasgames 사의 붓 등을 추천드립니다.



무광 도료와. 마감제를 사용해라

모든 도료는 마른 뒤에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GW의 Abaddon Black 은 Vallejo Model Color 의 Black 보다 번들거립니다. 이렇게 유광 질감을 가지는 도료는 조명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리기 때문에, 내가 칠해야 할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디테일을 놓치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번들거리는 느낌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마무리가 안됐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프로들의 작품을 보면, 메탈릭 도료를 사용한 부분을 빼면 조명을 반사한 반짝임이 없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AK 나 Kimera, Scale75 등이 무광 특성에 집중한 도료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도료를 구하기 힘들시다면, 작업 후 무광 마감제를 뿌려주세요. 저는 이 개념을 깨달은 후 완성된 결과물에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도료를 흡수시켜라

희석한 도료는 수분이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붓으로 도료를 찍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도료가 붓 안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모델에 도색을 할 경우, 넘친 도료 때문에 방울이 지거나 얼룩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 상, 글레이징이 실패하는 이유도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희석한 도료에 붓을 찍은 뒤, 키친 타올에 붓을 가볍게 대서 넘치는 도료를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 넘치는 도료를 닦아낸 후에 모델을 칠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팁은 제 실력을 급격히 상승시켜준 팁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깨달으면서부터 그 전에는 힘들어했던 글레이징이나 NMM 등이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죠.



davecolwell725 · 팔로잉



davecolwell725 So just finished the photos for the Cult of the camera was out I took a WIP shot of my latest might think this looks cool for the most part from the (the back is pretty much though).

He may look finished but quite WIP and although change I still feel like plenty bits of tuning need to be especially in the blacks.

Going for a pretty dirty and look for these guys because DA fiction and the DA...



tomaspersifalpekar 님 외 3명이 좋아합니다

10월 16일

댓글 달기...

인스타는 비교가 아니라 영감을 위한 것

도색을 열심히 하다보면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게 모델을 완성한 뒤, 우연히 인스타 등을 돌아다니다가 엄청난 고수들의 작품을 보게 되는거죠. 갑자기 박탈감이 느껴지고, 의욕은 사라져버리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도색을 시작하고 8년 동안 큰 발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명 페인터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도색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작품은 나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색의 조합이나 붓 기술 등을 가르쳐주는 무료 교보재인 셈이죠. 국내외 유명 페인터들의 작품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감탄하고, 연구하고,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어주세요.



마무리

이 가이드에서 다룬 팁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이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저도 계속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도색 입문자 분들이 제게 자주 하셨던 질문에 대한 제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만약 가이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가이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